

20년대 국학연구와 학술관념의 변화 -북경대학연구소 國學門을 중심으로

朴英順(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一. 서언

二. 국고정리와 '신국학'의 형성

1. 국학문 설립과 '학술독립'
2. 국고정리의 정의와 범주
3. 국고정리의 방법과 태도

三. 학술평등의 관념과 분과학문체계의 형성

1. 경학, 사부분류의 와해와 학술평등
2. 국학의 학술분류체계의 형성변화
3. 국학의 학술분류체계의 한계

四. 결어

一. 서언

근대 서방학문의 유입은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지식과 학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1922년 중국 최초로 대학에 설립된 국학연구기구인 북경대학연구소 國學門(1922-1927, 이하 '국학문'으로 약칭)은 이에 대한 실천의 공간으로 기능하였고, 그 대상이 바로 국학이며 구체적 활동은 국고정리로 진행되었다. 국학문 동인들의 국고정리 활동이 자각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든 대응적 자세에서 출발하였든, 그들은 당시 거세게 다가오는 서방의 물결 앞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에 대처해야만 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 국학문 동인이 있었다. 그들은 왜 '뒤죽박죽' 쌓여있는 옛 문헌 더미를 정리해야했고 어떻게 정리하려했으며 이를 통해 무엇을 변화시키려 했는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통학술문화로서의 국학은 부단한 부침을 겪어왔다. 때로는 전통문화의 '정화'로서 '계승'의 길을, 때로는 '재정리'의 대상으로서 '회생'의 길을, 때로는 '청산'의 대상으로 '몰락'의 길을 각각 걸어왔다. 20년대 국고정리 이후 항일전쟁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거치면서 전면적인 대학교육제도의 개혁으로 인해 국학은 설자리를 잃어갔으며, 특히 문혁 시기에는 '破四舊', '批林批孔'의 외침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 후 8, 90년대 전통학술문화에 대한 반성과 국학열이 등장하면서 국학교육과 연구의 필요성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90년대 '국학열'과 20년대 '국고정리'는 국학교육연구의 '백가제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긴 역정 속에서 먼저 전통학술문화에 대한 학술적 고민과 반성을 진행해온 것은 20년대 국고정리이며 그 주요 인물들이 국학문 동인들이었다.

따라서 20년대 국고정리와 국학문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어오는 중국 국학교육연구와 학술연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본고의 출발을 삼았다.

20세기 상반기 학술계의 주목할 만한 현상 중의 하나는 학술연구기구의 성립과 국고정리의 학술문화운동이다. 학술연구기구는 학술의 발전을 추동하듯 국학 연구와 정리를 목적으로 성립된 국학문 역시 국학연구와 학술발전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이를테면 서학의 유입과 함께 청대 이래 경학이 주도했던 전통 학술의 구조가 와해되면서 국학문 동인들은 전통 학문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학문연구의 방법과 태도, 학문영역의 확대, 학술독립과 평등 및 학문분류체계 등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관념을 형성해나갔다.

이에 본고는 20년대 학술문화 활동 ‘국고정리’와 그 출현의 발원지 ‘국학문’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관련 문헌을 통해 그들이 ‘국학’이라는 전통학술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나갔고, 특히 학술적인 면에서 어떠한 학술관념과 학문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년대 국학연구와 그 학술변화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년대 국학 관련 연구는 대략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학, 국고 등의 개념에 관한 연구. 둘째, 2, 30년대 국학교육연구기구에 관한 연구. 셋째, 국학연구기구와 주요인물에 관한 연구 등이다. 위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20년대 국학연구소, 국학창도자, 국고정리 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로 진행되어 있으며, 국학교육연구기구 특히 본고에서 다룬 국학문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²⁾ 본고는 선행 연구의 성과 위에서 크게 국학문 동인들이 추구했던 ‘신국학’의 의미와 이로 인해 형성된 학술평등의 관념과 분과학문체계의 형성변화를 위주로 전개한다. 구체적으로 국고정리의 범위와 방법, 경학과 사부분류의 와해 및 학술평등과 학술분류의 변화와 한계점 등을 논의한다.

二. 국고정리와 ‘신국학’의 형성

1922년 채원배의 지지로 설립된 국학문은 호적의 국고정리와 함께 국학연구의 서막을 열었다. 국학문은 어떤 학술적 토양 위에서 국학연구기구를 세울 수 있었으며, 국학문 동인들이 지향하는 국고정리는 무엇이었는가?

- 1) ‘국학’에 관한 정의는 학자들 간 의견이 분분하다. “국학이란 명칭은 결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19세기 서학이 들어오면서 일부 사대부들은 국수가 서구의 비바람에 쓰러질까봐 걱정하여 이를 굳게 보존하고자 하였으니, 이를 국학이라 한다.”(曹聚仁): “하나는 중국 언어문자의 제작의 근원이며, 하나는 전장제도 마련의 취지이며, 하나는 옛 인물사적의 법칙을 삼을 수 있는 것이다.”(章太炎); “국외에서 들어온 학문과의 차별성에서 말하자면, 대개 중국고유의 학문범위 안에 속하는 것은 모두 국학이다.”(胡朴安); “일반적으로 국학, 국고는 중국의 전통학술문화를 말하며, 단지 국고는 좀 더 감정적 요소를 띤다.”(盧毅); “新學의 상대적인 의미의 舊學을 가리키며, 西學의 상대적인 의미의 中學을 말한다. 이를테면 중국정통학술을 말한다.”(桑兵); “근대의 국학은 일반적으로 중국학술의 간칭으로, 중국전통학술을 통칭한다.”(陳以愛) 이상 언급에 대한 관련 논문으로는 盧毅 <“國學”, “國故”, “國故學”-試析三詞在清末民初的語言變遷和相互關聯>(《教育學研究》2005년 2기); 陳以愛 《中國現代學術研究機構的興起-以北大研究所國學門爲中心》(江西教育出版社, 2002년); 桑兵 《晚清民國的國學研究》(上海古籍出版社, 2001년) 등이 있다.
- 2) 盧毅 <“國學”, “國故”, “國故學”-試析三詞在清末民初的語言變遷和相互關聯>(《教育學研究》, 2005년 2기); 吳滌南 《無錫國專與現代國學教育》(華東師範大學, 2006년), 陳以愛 《中國現代學術研究機構的興起-以北大研究所國學門爲中心》(江西教育出版社, 2002년. 이 책은 1차 檔案 자료를 입수하고 광범위하게 문집, 잡지 및 유관연구논저를 수집하여 국학문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를 하였으며, 본고에서 많은 참고를 하였음을 밝힌다.), 陳平原 《老北大的故事》(北京大學出版社, 2009년), 陶飛亞, 吳梓明 《基督教大學與國學研究》(福建教育出版社, 1998년); 陳林南 《清華國學院時期王國維論述》(福建師範大學, 2006년) 등이 있다.

1. 국학문 설립과 ‘학술독립’

근대 이후 서학의 유입이 거세지면서 전통의 전적은 그야말로 ‘케케묵은 옛 시대의 종잇조각’처럼 전락하자 지식인들은 강렬한 민족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學’을 통해 민족의 생존과 학술의 발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학 창도자 허수미(許守微)는 이를 ‘學’과 ‘亡國’의 관계로 논하였다.

고로 나라에 ‘학’이 있으면 비록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나라에 ‘학’이 없으면 영원히 망한다. 왜 그런가? 나라에 ‘학’이 있으면 나라는 망해도 ‘학’은 망하지 않으며, ‘학’이 망하지 않으면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지만 나라에 ‘학’이 없으면 나라도 망하고 ‘학’도 망하게 된다.³⁾

‘학’이 망하면 반드시 나라도 망하게 되니 나라를 보호하려면 반드시 ‘학’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서학의 유입은 국학연구의 흥기를 자극하였고 20년대 국학연구는 이렇게 중서문화의 충돌과 교류의 산물로 등장하였다. 당시 국학창도자들은 국학을 계승·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해왔다. 이를 테면 장태염은 사학 전승을 중시하여 개인적으로 국학강습소 등을 설치하여 절강 지역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으며 이는 양계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소수 모임의 형태일 뿐 체계적인 학술연구기구로서의 형태를 갖추진 못했다. 서방의 큰 물결을 몇몇 사람들이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보다 규모를 갖춘 연구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학술계는 국학연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채원배의 연구소 설립의지와 맞물리면서 1921년 북경대학 평의회는 <北大研究所組織大綱提案>에서 전문적으로 학문을 연구할 연구소 건립을 계획하게 되고, 1922년 채원배의 지지 아래 국학문이 탄생하게 되었다.

중국에 구미식 연구기구를 설립하려는 것은 채원배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북경대학연구소 설립은 그의 학술독립의 의지가 잘 반영된 예이다. 채원배가 대학연구소 설립을 이처럼 중시한 데는 본인의 유학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08년에서 1911년 동안 독일 라이프치히(Leipzig)대학에서 수학을 하면서 1912년에서 1913년까지 그 대학 ‘문명사와 세계사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였다. 이는 채원배에게 커다란 인상을 남겼으며,民国 초 교육 총장을 거쳐 북경대학 교장 임기 시 ‘대학은 교원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실현하였다.⁴⁾

채원배의 학술적 독립 의지는 국학문의 설립배경에 어떤 작용을 하였는가?

19세기말 이래 중국학생들의 유학이 많아지자 중국은 점점 구미 제국의 학술식민지로 전락할 우려에 직면하였고, 20세기 이후로 서학의 대량 유입으로 민족주의가 날로 팽배해지자 지식계는 ‘對應’과 ‘自生’의 차원에서 서학에 필적할 만한 자생력을 갖춘 학술적 독립이 요구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구미학술계의 한학 연구의 성과는 국학 관련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였다.⁵⁾ 그러므로 당시 중국의 ‘학술독립’은 채원배와 국학문의 입장에서 보

3) 許守微 <論國粹無陽於歐化>, 《國粹學報》, 1905년 7期. (桑兵 상계논문 참고).

4) 채원배는 1912년 民國 초에 교육 총장을 맡았을 때 독일의 대학제도를 모방하였으며, <대학령> 속에서 대학에 대학원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후에 이직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그 후 북경대학 총장에 취임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17년 북대평의회는 문, 이, 법 3과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대학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이상을 실현하였다. 그 후 1920년 북대평의회는 옛 연구소를 합병하여 4門으로 나누고 1922년 국학문을 설립하였다.

면 실로 절박한 것이었고 국고정리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구미 제도를 모방한 연구소가 건립되는 것은 하루 빨리 ‘학술독립’에 이르는 길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에서 유학을 하면서 서방학술의 흥성과 특징을 잘 알았던 채원배를 비롯하여 고희강(顧頤剛) 같이 중국에서 졸업한 젊은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국학연구와 학술발전을 추동할 전문연구기구를 건립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은 국학연구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으며, 국학문이 탄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2. 국고정리의 정의와 범주

‘국고’에 대한 정의 중의 하나는 전통은 여전히 현실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계승’의 가치가 있다는 구국 의식에서 출발한 관점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장태염, 유사배, 황간(黃侃) 등이다. 이들은 국학강습회, 신문, 잡지 및 대학의 강단 등에서 각종 방식을 통해 전통문화를 발양해 왔다. 장태염은 1903년 <癸卯口中漫筆>에서 “국고 民紀가 내 손에서 끊어진다면 이는 나의 죄이다.”라고 한 점으로도 보아 장태염의 마음속에 국고란 중국 학술문화전통으로서, 비록 과거의 것이지만 그 내재적 가치를 발굴하여 ‘精華’와 생명력을 발양·전승하고자하였다.⁶⁾

그러나 호적 등으로 대표되는 신진 인사들은 국학(혹은 국고)이 아직 죽지 않은 현실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과는 달리, 오히려 국고의 ‘故’자를 강조하면서 국고는 이미 시대적 가치를 잃은 단지 국학연구의 자료적 가치로서만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국고는 과거에 이미 죽은 물건이다. 유럽은 지금 성장하고 있다. 국고는 난삽하고 체계가 없는 자질구레한 지식나부랭이다. 유럽은 체계가 있는 학술이다. 이 둘은 절대 대등할 수 없는 이치이다.⁷⁾

‘고’의 의미는 ‘오래되고 낡은 것’이니 지금의 의미로 해석하자면 ‘과거의 것’과 상당한 의미이다.⁸⁾

국고는 단지 ‘과거’의 것일 뿐 심지어 ‘죽은 것’이다. 이미 죽은 병자의 시체처럼 ‘병리학상의 좋은 재료’이며 그 활용도는 단지 연구의 과정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시체해부’식의⁹⁾ 연구를 통해 중국 전통학술문화의 쇠약한 병적 근원을 찾아 오늘날의 조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전통 학술사상과 중국 민족이 발달하지 못한 원인과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그들이 의미하는 국고의 범위 또한 포괄적일 수밖에 없었다. 《國學季刊·發刊宣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5) 19세기부터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은 전문 한학 강좌와 한학과 및 연구소 등을 설립하였다. 독일은 1887년 베를린대학에 동방언어연구소를 설립하였고 1912년 정식으로 한학 강좌를 개설하였다. 張國剛 《德國的漢學研究》，中華書局，1994년 30-35쪽 참고.

6) 盧毅 <“國學”，“國故”，“國故學”-試析三詞在清末民初的語言變遷和相互關聯>，《教育學研究》，2005년 2기 참고.

7) 毛子水 <國故和科學的精神>，《新潮》1919년 1권 5호. (吳淞南, 상계서 18쪽 참고).

8) 曹聚仁 <國故學之意義與價值>，許嘯天《國故學討論集》(上)，上海書店，1991년 50-68쪽.

9) <國故和科學的精神> (吳淞南 상계서 18쪽 참고).

‘국고’는 중립적인 명사로서 포편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국고’는 ‘國粹[정수]’도 포함하지만 ‘國渣[찌꺼기]’도 포함한다.¹⁰⁾

‘국수’와 ‘국사’를 두루 포함한다는 것은 국고정리가 단순히 전통문화의 정수(精髓)와 생명력을 발양·전승해간다는 차원만은 아니다. 채원배는 1918년 《北京大學月刊·發刊辭》에서 “연구란 한갓 서구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구 속에서 더욱 진일보한 발명이 되어야 하며, 한갓 국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국수의 眞相을 드러내야 한다.”¹¹⁾라고 하였다. 즉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국수의 진상을 드러낸다는 채원배의 주장은 바로 국학문의 ‘국고정리’ 구호가 되었다. 그 후 1919년 호적은 <新思潮的意義>를 발표하면서 ‘국고정리’에 대해 체계적인 주장을 펼쳤다.

(중국) 고대의 학술사상은 지금껏 조리가 분명하지 않고 두서가 없으며 체계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조리 있고 체계적인 정리를 해야 한다. 전인들은 고서를 연구할 때 역사 진화적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태껏 일종의 학술연원과 사상의 인과 관계를 강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는 학술사상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발생 후 어떤 영향과 후탈이 있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전인들은 고서를 읽을 때 소수의 학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써 잘못을 전하는 오류를 범했다. ……따라서 세 번째 단계는 과학적인 방법과 정확한 고증을 통해 고인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전인들은 고대 학술사상에 대해 종종 이유 없는 선입견과 말도 안 되는 미신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양주목적은 금수라고 옥하면서 공자는 덕이 천지에 부합되며 도가 고금의 으뜸이라고 떠받든다. ……따라서 네 번째 단계는 앞의 세 단계를 종합하여 각각의 일가에게 본래의 진면목과 그 진정한 가치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¹²⁾

호적은 신문화 운동의 지도적 인물로서 국고정리의 가치를 내걸고서, ‘오래된 낡은 종이 더미’에 ‘새로운 과학적 방법’을 운용하는 학문연구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국고정리란 산견되어있거나 뒤섞여있는 국고를 하나의 맥락을 잡아 그 학술적 연원을 정리하는 것이며, 과학적 방법으로 정확한 고증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학술적 의미를 돌려놓는 것이다. 즉 국고의 대상과 범위는 ‘國粹’, ‘國渣’ 모두를 포함하여 무엇이 ‘國粹’이고 무엇이 ‘國渣’인지를 알려면 먼저 비판적 태도와 과학적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고정리란 과학적 방법으로 중국의 전통학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학술의 인과(因果)를 찾아내어 역사적 관념으로 서로 다른 학술의 가치를 비판함으로써 각각의 본연의 학술적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국고를 창명(彰明)하는 것에 있다기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응’과 ‘자생’을 확보할 수 있는 국학이 살아남는 길이자 학술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는 방도라고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3. 국고정리의 방법과 태도

10) 胡適 <發刊宣言>, 《國學季刊》, 제 1권 제 1호. (진이애, 상계서 185쪽 참고).

11) 高平淑 主編 《蔡元培文集》 3권 教育(上), 483쪽. (진이애, 상계서 35쪽 참고).

12) 《新青年》 제 7권, 제1호, 11쪽. (吳淞南, 상계서 20쪽 참고).

이러한 정의와 범주를 국고정리 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왔는가? 처음에는 우선 청인(淸人)들의 고증방식을 인정하였다. 청대 학자의 학술연구방법은 과학적 정신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리와 체계를 갖추었다고 긍정하였다. 호적 등 국학문 동인들이 청인들의 교감, 음운 등의 연구를 ‘체계적이고 가치 있는 과학’이라고 평가한 점은 과학을 중시하던 당시 국고연구의 학자들에게 커다란 진작은 물론 국고연구의 지위를 한층 높여주었다. 나아가 건가(乾嘉) 한학의 실사구시 정신을 계승한다는 기초 위에 구미의 현대학술방법을 흡수하여 시야를 넓히고 규범을 세워 ‘신국학’을 창조하려 하였다.

그러나 청인들의 학문이 과학적이라는 의미는 고서에 대한 교감, 훈고, 음운 연구를 비록 고증과 논증을 통해 진행하였지만, 연구 범위와 방법이 협소하여 주로 문헌에 한정되었고 그것도 경서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참고와 비교의 자료도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일본학자 역시 “지나 학자들은 대부분 과학적 방법을 모르며, 청대 학자들의 고증학, 실사구시는 표면적으로는 정교한 기치를 표방하지만 그 내용은 학술적인 면이 부족하고 자료 분석 또한 불충분하며, 논리 역시 철저하지 못하여 비교연구의 가치를 알 수 없다.”¹³⁾라며 ‘신국학’의 한 폐단을 지적하였다. 이로써 국학연구와 방법은 단지 건가 고증학의 변형된 복제로서의 ‘신고증학’이라는 낙인을 면할 수 없었다. 이는 일본인의 견해만은 아니었다.

호적은 <治學的方法與材料>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삼백년의 古韻學은 외국학자 한 명이 살아있는 방언을 운용하는 실험을 당해낼 수 없고, 몇 천 년의 古史 전설은 두 세 명 학자의 비평과 지적을 감당하지 못한다. ……스웨덴 학자 安特生(J.G.Anderson)은 여러 곳의 신석기를 발견하여 중국 史前 文化를 몇 천 년 앞당길 수 있었으며, 프랑스 桑德華(Pere Licent)는 일부 구석기 문물을 발견하여 중국의 史前 文化를 몇 천 년 앞당길 수 있었다. ……종래의 학자들이 종이 안의 학문이라고 여기는 것은 마치 옛 종이 더미 위에서 연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¹⁴⁾

이는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서방의 과학적 학문방법을 수용하여 비교분석하는 ‘중서관통’의 새로운 학술방법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며, 또한 호적 등 국학문 동인들이 서방의 과학정신을 수용하려한 국고정리의 주된 목적 가운데 특히 ‘서방의 학리를 받아들이는 것[輸入學理]¹⁵⁾을 중시한 것과도 관련한다. 이로써 국학문 동인들은 일본, 유럽의 한학의 연구 성과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국학의 연구방법과 태도를 재조정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국학연구의 ‘과학적 방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가치중립적인 국고정리의 태도를 표방한다.

우리가 말하는 국고정리는 결코 향수를 짜내는 것이 아니다. 향수를 짜내는 것은 바로 국수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국고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지 그에게 진면목을 돌려주자 하는 것이며, 단지 사실을 진솔하게 서술하려는 것일 뿐이니, 분노와 향수 모두 사실이며 모두 정리의 대상에 포함된다.¹⁶⁾

13) <讀陳桓氏之‘西域人華化考’>. (桑兵, 상계논문 참고).

14) <治學的方法與材料>, 《胡適文存》, 제3집, 204-205쪽.

15) 호적은 <新思潮的意義>(《新青年》1919년 제 7권 제 1호)에서 과학적 정신은 국고정리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이를 “문제를 연구하고[研究問題], 학문의 원리나 이론을 받아들이며[輸入學理], 국고를 정리하여[整理國故], 새로이 문명을 만든다[再造文明]”는 4가지로 요약하였다. (桑兵, 상계논문 참고).

16) 胡適 <致錢玄同>(1925, 4, 12). 耿雲志, 歐陽哲生 《胡適書信集》(上) 北京大學出版社, 1996년, 360쪽.

호적은 국학문의 국고정리 작업을 20년대 이전 국수파의 ‘국수보존’의 심리상태와 일정정도 거리를 두어 자신들의 국고정리의 기본 태도를 확고히 하려 했던 것이다. 국고는 일종의 과거의 문물이자 역사이자 문화사이므로 그것이 ‘國粹’이든 ‘國渣’이든 모두 정리의 대상에 포함되며, 목적은 국수보존이나 발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면목을 보여주는 데 있으므로 중립적인 자세로 국고정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수파의 국학 창도의 출발점이 학술적 추구로서의 연구 자체에 있다기보다 국학의 보존에 있었고, 이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을 양성하여 과거전통을 지키고 계승하려한 것과 구별을 두고자 했던 것이다. 즉 조기의 국학연구가 주로 서구화의 대응차원에서 국수보존을 특징으로 했다면 오사 이후 호적 등 국학문 동인들은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에서 비판적인 눈으로 ‘國粹’와 ‘國渣’를 모두 정리하려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체계적으로 국학 연구 자료를 배치한다.

우리는 무엇을 연구하든 역사방면으로부터 착수해야 한다. 문학과 철학을 연구하려면 먼저 문학과 철학을 연구해야 한다. 정치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회제도를 연구하려면 먼저 그 제도의 연혁사를 연구하여 인과 관계와 전후의 주된 관건을 찾아내어, 체계가 없는 문학, 철학, 정치 등으로부터 체계를 찾아내야한다.¹⁷⁾

이는 역사적 안목으로 일체 과거문화의 역사를 정리하여 ‘중국문화사’를 만들어 국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자는 취지와 관련된다. <발간선언>에서 체계적인 국고정리의 취지에 부합한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하였다. 하나, 자료 열람에 편리한 ‘색인식 정리’ 둘, 조리와 체계를 세운 ‘결산식[종합적] 정리’ 셋, ‘전사(專史)식[개별사] 정리’이다. 특히 ‘專史式’ 정리를 강조하면서 이를 (1) 민족사 (2) 언어문자사 (3) 경제사 (4) 정치사 (5) 국제교통사 (6) 사상학술사 (7) 종교사 (8) 문예사(9) 풍속사(10) 제도사 10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¹⁸⁾ 이러한 ‘중국문화사’ 작성을 국고정리의 목표로 삼고 분업과 협업의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뒤죽박죽인 기존의 국학 자료를 하나의 계통을 세워 과학적 정신과 태도를 지닌 ‘신국학’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널리 비교 연구를 취해 국학 자료의 정리와 이해를 돕는다. 국학을 연구할 때 폐쇄적이고 고립된 태도를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비교 연구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서양 학자들의 古學 연구 방법은 일찍이 일본의 학술계에 영향을 미쳤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시기에 놓여있다. 우리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그들의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조리가 없고 체계적이지 못한 습관을 고쳐야 한다.¹⁹⁾

고립된 태도와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증서학이 융회 관통하는 비교 연구의 자세로 국고 연구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인들의 고증학 연구방법과 범위의 협소함과 비교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자, 국학을 범위로 하지만 국학과 상관있는 각종 동방언어학, 비교언어학, 인도철학 등 주변 학문과의 연계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17) 胡適 <研究國故的方法>, 蔣大椿 主編 《史學探淵-中國近代史學理論文編》, 吉林教育出版社, 1991년 685쪽.

18) 상동.

19) <發刊宣言> (진이애, 상계서 168쪽 참고).

넷째, 의고(擬古)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호적은 1921년 여름 동남(東南)대학에서 <研究國故的方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할 때 국고정리의 4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중 특히 ‘의고의 태도’를 강조하였다.

의고의 태도는 두 가지 면에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고서의 진위를 의심한다. 다른 하나는 진서가 저 산동의 늙은 선생에 의해서 날조된 곳을 의심한다. 우리들의 의고의 목적은 ‘진실’을 얻는데 있다. ……사부 안의 경, 사, 자 세 종류는 대부분 신뢰할 수 없으니, 항상 의고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²⁰⁾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부(四部)와 유가 전적의 권위에서 벗어나 비판적인 태도와 시각으로 그들의 가치와 권위를 새로 규명하자는 것이다. 차라리 의심하여 그르칠지언정 믿어서 그르칠 수는 없다는 비판적인 태도는 특히 의고, 변위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상으로 볼 때, 국고정리의 방법과 태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역사적 안목에서 ‘전사’ 방식으로 국학 자료를 정리하며, 폐쇄적이고 고립된 태도에서 벗어나 비교의 자료를 채택하여 국고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학문 동인들이 추구하는 ‘신국학’의 과학적 정신과 방법의 의미이자 그 구현인 것이다.

三. 학술평등의 관념과 분과학문체계의 형성

정리대상은 국학이지만 경학에 국한하지 않고 국학 연구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학술의 독립성과 그 가치의 평등함을 지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학의 분류는 경학의 와해와 사부분류의 해체를 통해 학문의 평등성과 학술분과의 관념을 형성해왔다. 이는 중국 학술이 전통으로부터 현대 학문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하였다. 국학문 동인들은 어떻게 학문의 독립성과 학술분류를 진행해 나갔는가? 그 한계점은 무엇인가?

1. 경학, 사부분류의 와해와 학술평등

경학의 와해와 사부분류의 해체는 전통학술의 ‘와해’와 ‘분화’ 위에서 서학의 ‘유입’과 ‘전파’ 위에서 구현된 것이다. 경학의 와해는 어떤 학술적 변화를 가져왔는가?

첫째, 경학의 와해로 인해 그에 가려져있던 각종 학술은 독립적인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주광잠(朱光潛)은 <大學院課程之檢討>에서 중국의 전통학술의 특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중국의 학술은 자고이래로 경사자집 사부로 나뉘며, 청대 유학자가 나눈 의리, 고거, 사장은 대개 사부를 연구하는 데 치중한 점을 말한다. 사부 가운데 경과 사는 주요 지위를 차지하며, 자가 그 다음이고 집이 또 그 다음이다.²¹⁾

20) 첫째, 반드시 ‘역사적 관념’을 가지고 일체의 고서를 역사로 보아야 한다. 둘째, 책을 볼 때는 ‘의고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셋째, ‘체계적인 연구’에 종사해야 한다. 넷째, 반드시 ‘정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蔣大椿, 상계서 683-685쪽).

21) 朱光潛 《朱光潛全集》(9권), 安徽教育出版社, 1993년, 79쪽.

주광잡에 따르면, 중국의 전통학술은 경사자집으로 나뉘며 이 중 경학이 최고의 위치에 놓여 의리, 사장, 고거의 방법으로 연구되었다. <발간선언>에서도 청대 유학자들은 ‘유가의 서적이 최고의 것’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주로 경학연구에 전력을 다해 학술연구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낡은 학술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경학의 와해를 위협하는 조짐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심지어 주희조(朱希祖)는 경학의 이름도 버려야 하며 고서를 연구할 때는 경학을 교주의 최고 경전으로 대우하지도 않고, 모든 학문은 평등하므로 경학만 단독으로 발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²²⁾ 이는 경학의 권위로 인해 학문의 평등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학술발전에도 상당 제약을 가져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어 진독수(陳獨秀), 심겸사(沈兼士) 등의 비평이 쏟아져 나왔다.

중국 학술이 발달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학자 자체가 학술 독립의 신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학은 원래 독립적인 가치를 지녔는데도 문학가 자신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육경에 빌붙어 ‘문이재도’나 ‘성현을 대신하여 자신의 이론을 내세운다.’는 등 멋대로 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자 했다. 사학 역시 원래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데도, 사학자 자신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춘추》에 빌붙어 대의명분에 착안하여 기꺼이 사학을 윤리학의 부속품으로 삼으려하였다.²³⁾

사실 경을 가지고 모든 학문을 통제하는 것 ……나는 이것은 모든 학문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²⁴⁾

경학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기존 경학위주의 연구영역에서 벗어나 각 학문의 가치를 부여하려는 학술적 태도로서 학술평등 관념을 가져오게 되었다. 예를 들어, 호적, 고혈강 등은 “민간의 어린이나 여자들이 부르는 가요는 시 삼백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민간에 전해지는 소설과 고상한 전적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고고 분야, 사료 분야, 풍속 가요 분야에 대해 우리의 눈은 한결같이 평등하다.”²⁵⁾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학문의 가요연구회 학자들은 학술적인 안목으로 민간 가요를 수집하였으며, 심겸사, 전현동, 주작인, 유복(劉復) 등은 공동으로 가요조사와 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마유조(馬裕藻)는 주수인(周樹仁)에게 중국소설사 강의를 부탁하여 《中國小說史略》이 작성되어 중국 소설사의 창시가 되었으며 중국문학 분야에서 소설의 지위를 확립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문학에서 ‘大雅之堂’에 오르지 못한 俗文學의 발전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즉 국학문 동인들은 소설, 가요의 연구를 통해 ‘유가의 서적이 최고’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각 학문 영역의 학술적 평등 관념을 실현해나갔던 것이다.

경학의 쇠퇴를 불러온 사회적 요인으로 사상적인 면에서는 제자 사상의 재발견, 서학의 유입 등이 경학의 지위를 동요하기 시작했고, 제도적인 면에서는 1905년 과거제도의 폐지로 인해 경학은 사회적 기반을 잃게 되었으며, 교육적인 면에서는 1912년 채원배가 교육총장을 맡으면서 대학에 경과(京科)를 폐지하고 경학을 문과의 일부에 편입시킨 점 등이다. 결국 이

22) 朱希祖 <整理中國最古書籍之方法論> (蔣大椿, 상계서 678-681쪽).

23) 陳獨秀 <隨感錄>, 任建樹 《陳獨秀著作選》(1권), 上海人民出版社, 2009년, 389쪽.

24) 沈兼士 <近三十年來中國史學之趨勢>, 《沈兼士學術論文集》, 中華書局, 1986년, 372쪽.

25) 胡適 <發刊宣言>, 顧頡剛 《國學門週刊》 <1926年始刊詞>. (진이애, 상계서 191쪽).

러한 사회적 요인들은 경학의 몰락을 가속화하였으며, 게다가 학문 영역의 독립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 국학문 동인들의 학술관념의 변화는 경학의 와해를 더욱 추동하였다. 이에 따라 경학에 가려있던 각종 학술은 독립적인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에 대해 주자청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예전의 상황에 따르자면 본래 경학만 있었으며 사자집은 모두 종속적이었다. ……민국 이래 경학은 이미 학문이 되지 않았고 ……과거에는 종속과 대국의 구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²⁶⁾

민국 이후 각 학술이 평등할 수 있었던 것은 경학은 이미 학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적 등 국학문 동인들은 정말 민초의 국수를 선양하려는 국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국학을 연구하였지만 학술분류에 대한 인식과 학술의 독립성을 인정하려는 태도에서는 더욱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국학문 동인들은 학술평등의 관념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각 학문의 독립성을 인정함으로써 국학은 물론 현대 학술연구의 독립성을 중시하는데도 일익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학술관념의 변화는 <발간선언>에 나타난 학술평등의 정신 위에서 구축되었으며, 중국 전통학술체계의 현대로의 전환을 예고하였고, 나아가 서양의 현대 학술체계를 사용하여 중국 전통의 사부분류를 대체해나가게 되었다.

둘째, 경학의 쇠퇴는 사부분류의 와해와 목록학 분류의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 고대인은 일찍이 문학, 사학, 종교, 철학 등을 각각 분류 독립하지 않았다. 차라리 상호 관계를 중시하며 서로 한 곳으로 통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학문을 볼 때 항상 그를 하나의 통합체로 여겼고, 대부분 각 방면을 회통하여 하나의 종합성 연구를 하는 것을 주장하였다.²⁷⁾

고인들은 각 학문 영역을 독립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학술 분류의 사회적 요구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학문연구는 경학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니, 중국의 학문은 ‘전문적’이지도 않고 ‘고립적’이어서 발달하지도 진보하지도 못하였고, ‘전문적’이라면 서양과 같이 ‘분과’해야 하며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학술분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²⁸⁾

사부분류의 와해는 중국 목록학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목록 분류의 변화는 학술 분류의 변화발전을 반영한다. 수나라 때 경사자집 사부분류가 생기면서 청대까지 국가 서목은 사부분류를 유지하면서 중국 고대목록 분류의 주된 위치를 지켜왔다. 1896년 양계초가 《西學書目表》에서 학(學), 정(政), 교(教) 3목(目)을 세워 각종 서학 서적을 기록하면서²⁹⁾ 전통 사부분류는 점차 붕괴되고 서양의 학술목록을 주체로 한 새로운 학술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정말 서양식 학당, 역서 및 유학생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³⁰⁾ 서양의 근대 학술목록에 따라 국학을 재배치하려는 인식도 사부학문의 붕괴를 야기한

26) 朱自清 <部頒大學中國文學係科目表權>, 朱喬森 《朱自清全集》(2권), 江蘇教育出版社, 1993년, 10쪽.

27) 錢穆 <中國學術通義·四部概論>, 羅聯添 《國學論文選》, 學生書局, 1985년.

28) 羅志田 <西學衝擊下近代中國學術分科的演變>, 《社會科學研究》, 2003년 1期, 108쪽.

29) 오늘날 ‘이과’에 속하는 학과는 ‘學’에 속하며 ‘政’은 史志, 官制, 學制, 法律, 農政, 礦政, 工政, 商政, 兵政, 船政 등 ‘실용’과목을 말한다. 羅志田, 상계서 110쪽 참고.

30) 첫째, 근대 학술분과와 학술체계에 대한 인식은 학당 및 장정의 학과분류방안에서 실현되었다. 양계초(《湖南

요인 중의 하나이다.

목록학 부분에서 풍계분(馮桂芬)은 1861년 《采西學議》에서 서학과 중학을 종합하여 중국 근대에 가장 이른 학술분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서학 속에서 算學, 重學, 視學, 光學, 化學 등 이른바 ‘格物’의 학문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그 이후의 목록서에서도 잘 드러났다.³¹⁾ 즉 학술분과의 인식이 심화됨에 따라 중서학술의 종합성 학과분류 형태를 띠면서 초보적으로나마 근대 학술체계분류 중 자연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이 조성되었다. 이는 근대 서방의 지식분류체계 및 학술분과 관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학과분류방안은 국학에서도 드러났다.

2. 국학의 학술분류체계의 형성변화

학술분과 관념은 국학문에서 발표한 <研究所國學門啓事>의 ‘분과하여 연구’한다는 취지에서 드러난다.

우리의 학술은 지금껏 분과 관념이 부족하였다. 정리하기 이전에 쉽사리 서둘러 분과하지 못했으므로 본 국학문의 설립 취지는 바로 구학을 정리하고 향후 분과 준비를 할 것이다.³²⁾

‘분과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발간선언>에서 전사(專史)항목으로 국학자료를 통일적으로 정리하여 중국문화사를 만들자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국학문의 주류 세력이었던 심겸사, 주희조 등은 서양의 학술분류로 분과하여 연구한다는 취지를 실행하고자 하였다. 즉 서양의 현대 학술분류체계를 통해 국학 자료를 재배치한다는 것은 체계가 부족한 국학의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인식했기 때문이며, 이미 국학문 동인에게 공동된 인식이었다.

그러나 전통학문체계 분류기준인 사부분류의 와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

時務學堂》1897): 溥通學(經學, 諸子學, 公理學, 中外史志), 專門學(公理學, 公法學, 掌故學, 格算); 張之洞(《通藝學堂》1897): 文學門(9문: 輿地學, 유럽근대사, 名學, 計學, 公法學, 理學, 政學, 敎化學 등), 藝術門(10문: 算學, 幾何, 化學, 格物學, 天學, 地學 등); 孫家鼎(《議復開辦京師大學堂折》1896): 10과(天學科, 地學科, 道學科, 政學科, 文學科, 武學科, 農學科, 工學科, 商學科, 醫學科); 양계초(《京師大學堂章程》1902): 溥通學(10과: 經學, 理學, 中外掌故學, 諸子學, 逐級算學, 初級格致學, 初級政治學, 初級地理學, 文學, 體操學), 專門學(10과: 高等算學, 高等格致學, 高等政治學, 高等地理學, 農學, 鑛學, 工程學, 商學, 兵學, 衛生學); 張之洞·劉坤(《籌議變通政治人才爲先折》1902) 7과(經學, 史學, 格致學, 政治學, 兵學, 農學, 工學); 張百熙(《欽定京師大學堂章程》1903) 7과(政治, 文學, 格致, 農業, 工業, 商務, 醫術); <大學令>(1912), <大學規程>(1913) 7과(文科, 理科, 法科, 商科, 醫科, 農科, 工科) 둘째, 학술분과에 대한 관념은 서양 서적의 번역에서도 잘 드러났다. 1871년부터 江南製造總國翻譯館은 1880년까지 서양서 번역을 총 98종을 출판, 1899년 126종 출판. 진수(陳洙)의 《江南製造局譯書提要》(1909년)는 강남제조국에서 번역한 서양 서적 총 160종을 수록. 대부분 응용과학과 기술제조 분야에 속하며, 정치 법률, 사지(史志), 상무 등 사회과학 분야는 33종에 불과했다.(金以林 《近代中國大學研究(1895-1949)》, 中央文獻出版社, 2000년 36-37쪽; 左玉河 <西學移植與中國現代學術門類的初建>, 《史學月刊》, 2001년 4기; 程嘯, 談火生 <分科設學和清末明初中國的學術轉型>, 《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년 2기 등 참고.

31) 王韜: 文學(4과: 經, 史, 掌故, 詞章) 藝學(4과: 輿圖, 격치, 天算, 律例)(《變法自疆》, 1883); 鄭觀應: 6과(文學科, 政事科, 言語科, 格致科, 藝學科, 雜學科). 문학과: 詩文, 詞賦, 章奏, 箋啓/ 정사과: 吏治, 兵刑, 錢谷/ 언어과: 各國 언어문자, 律例, 公法, 條約, 交涉, 憑文/ 격치과: 音響學, 光學, 電氣學, 化學/ 예학과: 天文, 地理, 測量計算, 製造/ 잡학과: 商務, 採掘, 細則, 農政, 醫學(《盛世危言》, 1884); 陳虬: 5과(藝學科, 西學科, 國學科, 史學科, 古學科). 이중 서학과(光學, 電學, 氣學, 鑛學, 化學, 方言學[외국어언어학] 등 6문). 肖朗 <中國近代大學學科體系的形成-從“四部之學”到“七科之學”的轉型>, 《高等教育研究》, 2001년 6기, 100-101쪽 참고.

32) 《北大日刊》, 1922년 2월 22일 1쪽. (진이에, 상거서 172쪽).

국 전통학술의 분과추세는 대개 아편전쟁이후 시작되었지만 당시 이루어진 분과체계는 주로 서학의 내용을 증가하는 정도였지 중국 고유의 학술 즉 국학으로 볼 때 분과의 추세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 않았다.³³⁾ 그러다가 1907년 유사배(劉師培)는 <擬國粹學堂學科預算表>에서 학과분류를 21개로 나누면서 차츰 국학의 분과개념의 발단을 열어갔다.³⁴⁾ 이어 1919년 주희조의 <整理中國最古書籍之方法論>에서 고서를 역사, 철학, 문학 및 정치, 법률, 예교, 풍속, 건축, 製造 등으로 분류하여 “각 학술로 나누어 작업하자.”³⁵⁾는 구호가 등장하면서 국학연구의 분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1922년 양계초 역시 “학술이 발달할수록 분과는 더욱 정밀해진다.”³⁶⁾라며 긍정하였다.

국학의 분과의 필요성은 국학문 동인 호적, 고힐강, 부사년 등에 의해 계속 강조되었다. 고힐강은 일찍이 북경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1918년 <上北京大學圖書館書>에서 중문도서 분류를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중문도서는 더 이상 전인들의 기존 방법인 경사자집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종류에 따라 해석·분석하여 각각 그 유형으로 돌려놓아야 한다.”³⁷⁾고 주장하였다. 그 후, 국학문 동인들은 1923년 <발간선언>에서 국학분류와 체계에 대한 관념을 구체화시킨다. 하나는 앞서 말했듯이 국학연구의 체계를 세우기 위한 ‘專史’ 형태의 10개 항목이 그러하다. 이런 제안은 국학의 분과관념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다른 하나는 국학문을 학과 형태가 아니라 연구내용에 따른 학문분류로 개설한 점이다.

北京大學研究所 學科設置(1922)³⁸⁾

國立北京大學研究所							
自然科學門	社會科學門	國學門					外國文學門
		文學	史學	哲學	語言學	考古學	

이는 채원배가 국학문 소장을 하면서 평소 학술연구를 위해 연구소를 세워야 한다는 ‘學術立校’ 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학문을 자연과학, 사회과학, 국학, 외국문학 4門으로 하고 학과를 범위로 하지 않았다. 이는 아마 ‘分科設學’의 구상은 대학의 본과 단계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국학문은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소 본연의 기능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학문 안에 문자학, 문학, 철학, 사학, 고고학 5개 연구실을 두고 구체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면서 고고, 가요, 풍속조사, 방언조사, 명·청당안정리 5개 연구팀을 개설했던 점에서 드러난다.³⁹⁾ 이전의 ‘分科設學’의 교학실천이 지식의 전과 영역에 가까웠다면 국학문의 학술연구

33) 盧毅 <整理國故運動與國學研究的學科重建>, 《福建論壇》, 2004년 6期.

34) 경학, 문자학, 윤리학, 心性學, 철학, 종교학, 정법학, 實業學, 사회학, 사학, 典制學, 고고학, 地輿學, 曆數學, 박물관학, 문장학, 음악학, 圖畫學, 서법학, 譯學, 武事學 21개 학과이다. (盧毅, 상계논문 참고).

35) 蔣大椿, 상계서 671, 678쪽.

36) 梁啓超 《中國歷史研究法》, 東方出版社, 1996년, 35쪽.

37) 顧頡剛 《北京大學日刊》, 1918년. (盧毅, 상계논문 참고).

38) 歐陽小紅 《國學院的發展及辦學特色探析》, 《廈門大學》(碩), 2008년, 31쪽.

39) 1927년 <國立北京大學研究所國學門組織表>안의 ‘五會’는 아래 5개 연구분과팀을 말한다. 각각의 학술사업은 다음과 같다. (진이에, 상계서 92쪽).

명칭	주임	주요 업무	성립
歌謠研究會	周作人	가요수집과 연구	1920. 12
明請史料整理會 (整理檔案會)	陳垣	명·청내각당안 정리 및 연구	1922. 5

활동은 거기에서 진일보하여 지식의 재생산 영역까지 관통하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국학의 분과학문 관념은 국학문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하문대학 국학원의 학과설치와 제로대학의 교과과정에서도 보여 진다.

廈門大學國學院 學科設置(1926)⁴⁰⁾

역사고물, 박물관(동물, 식물, 광물), 사회조사(예속, 방언), 의학, 天算, 地學, 미술(건축조각, 瓷陶漆器, 음악회화, 塑像繡織, 서법), 철학, 문학, 경제, 법정, 교육, 神敎, 閩南문화연구

齊魯大學國學研究所 課程設置(1934-35)⁴¹⁾

상반기	하반기
杜威教育學院	金石研究
哲學概論	墨子
中國近代思想史	
邏輯	
普通心理學	
美術	
古今文選	古今文選
中國文學史	中國文學史
文字學	文字學
修辭學	專家詩
中國美術史	中國美術史
國學大綱	國學大綱
戲劇原理	戲劇作法
文藝思潮	文藝思潮
文學概念	小說原理
古今文選	古今文選
說文	說文
詩選	詩選
中國歷史綱要	兩漢史
中國古代史	中國歷史研究法
明清史	正史概論
東北史	中國近世外交史
日本史	中國史學痛論
中國沿革地理	中國沿革地理
近世中歐交通史	近世中歐交通史
教育概念	家庭社會學
社會學導論	社會演化
社會問題	農村社會概念

考古學會 (古跡古物調查會)	馬衡	고적고물 조사·발굴 및 연구事宜 보존	1923. 5
風俗調查會	張竟生(江紹原)	문자기록과 실물조사를 통해 풍속정리 및 연구	1923. 5
方言研究會 (方言調查會)	林語堂(劉復)	각지 방언조사 방언지도 작성	1924. 1

40) 상동 31쪽.

41) 상동 36쪽.

학문대학은 물론 특히 30년대 교회대학 제로대학 등 국학연구기구에서도 학문분류체계가 이미 사부분류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대 학문분과체계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중국 전통 사부분류 체계는 목록학 서적, 신식 학당의 학과와 과목 및 번역물 등에서 분과학문체계가 싹을 트이면서 국학의 분류로 까지 이어져 왔다. 이러한 학문 분류의 특징은 주로 중국으로 ‘이식해 온 학과’와 중국전통학술에서 ‘전환된 학문’이 혼재한다. 분과학문은 학술영역분류와 지식개념의 변화를 수반한다. 지식분류는 구체적인 학과분류 체계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학문연구의 독립적 가치를 부여한다. 국학분야의 학문분류는 중국전통학술의 사부분류 개념이 쇠퇴하면서 주로 현대 학술분류에 따른 국학의 분류체계를 형성해 왔고, 그에 상응하는 개별 학문영역의 독립적 가치도 인정해왔던 것이다.

3. 국학의 학술분류의 한계점

일반적으로 전통의 지식분류체계는 사부의 도서 분류나 학과 분류에서 찾는다. 비록 완전한 학술분류체계로 인식되진 않았지만 중국의 전통 지식체계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청말 학당과 장점(章程) 및 역서 등에서 보여 지는 분과형태는 청말 학인들의 지식분류개념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국학연구소의 학술분류와 학문독립의 관념을 가속화 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결국 20년대 국고정리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조취인은 그것이 전통 학술체계에 가져올 충격을 이미 의식하고 있었다.

국고가 일단 정리되면 분리의 형세가 이루어진다. 어느 날 국고 정리로 형성된 철학, 교육학, 인생철학, 정치학, 문학, 경제학, 사학, 자연과학은 ……반드시 스스로 체계를 이루어 소위 ‘국고’와 완전하게 분리될 것이다.⁴²⁾

‘분리’에서 ‘체계를 이루기까지’란 바로 전통 학술 국학의 붕괴가 새로운 학술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이다. 국고정리는 바로 이 신규 학술체계의 붕괴와 구축 사이에서 전통 학술체계가 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동한 학술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현대 학술분류의 변화에 국학문 동인들은 일정부분 그 역할과 기능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중서 학과분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서양의 학문분과체계를 받아들여 정리한 것은 완벽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왕중민(王重民)은 1929년 <國學論文索引初編·敘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근인들 중 분류하는 사람 가운데 혹자는 사부를 기준으로 하고 혹자는 구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원류 상 서로 다른 점이 존재하므로 이 둘은 겸용될 수 없다.⁴³⁾

당시 학술계의 분과관념은 국학과 서양학문이 혼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점은 국고정리 운동 기간 중 왕중민이 청말 이래 81종 잡지에 게재된 국학관련 논문을 정리하여 엮은 《國學論文索引》에서도 잘 드러난다.⁴⁴⁾

42) 曹聚仁 <國故學之意義與價值>, 許嘯天 《國故學討論集》(上), 上海書店, 1991년, 74쪽.

43) 國立北平圖書館編 《國學論文索引初編續編》 1쪽. (진이애, 상계서 307쪽)

44) 주로 1919년 이후 발표된 논문이라 함. 《國學論文索引目錄》, 상동.

- | |
|---|
| (1) 총론 (2) 군경(群經) (3) 언어문자학 (4) 고고학 (5) 사학 (6) 지구과학 (7) 제자학
(8) 문학 (9) 과학 (10) 정치법률학 (11) 경제학 (12) 사회학 (13) 교육학 (14) 종교학
(15) 음악 (16) 예술 (17) 도서목록학 |
|---|

이러한 국학 분류목록의 신규 혼합은 국고정리 과정 중에 당시 학술계가 학문방법이나 학술 체계에 있어서 사부를 따라야 할지 아니면 서구를 주장해야 할지에 대해 일치된 정견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과도기적 특색이기는 하지만 ‘군경’, ‘제자학’의 구 명칭을 보존하면서도 서학의 목록이 혼재되어, 서양 학술의 안목으로 중국 고서를 분석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 전통학술로 볼 때, 국고정리는 중국 학술의 현대적 전환을 추동한 일종의 패러다임적 의미를 지니는 학술문화운동이며, 이러한 전환과정 속에서 분과학문체계의 성립은 상당히 중요한 고리가 되었다. 이는 국학연구의 기본내용을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학연구의 주요방향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통 학술체계의 전환은 두 가지 단계에서 드러났다. 하나는 전통 사부학문의 와해이며, 다른 하나는 서양의 근대 학술분류를 수용하여 전통 학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합한 것이다. 물론 청 말부터 민국시기에 이르기까지 학술분과체계는 신규와 중서의 분과 관념이 혼재되어 있지만, 학술분과 관념과 그 체계 수립에 국학문 동인들의 일정 역할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四. 결어

국학연구기구는 1922년 국학문을 시작으로 1925년 청화대학 국학연구소(1925-1929)는 당시 유명한 ‘四大導師[양계초, 왕국유, 陳寅恪, 趙元任]’를 초빙하여 국학교육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1926년 하문대학 국학연구원(1926-1927)은 화교 진가경(陳嘉庚)의 후원으로 설립된 후노신, 임어당 등 유명 인사를 초빙하여 운영해갔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교육정책의 변화 및 경비문제 등으로 인해 1927년 이후 하나둘씩 폐교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국학문 역시 22년~27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면서 종합연구기관 국립중앙연구원, 북평연구원으로 거듭난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20년대 성행했던 국학연구기구를 비롯하여 특히 국학문은 국학의 영역 확대, ‘종이’에서 벗어난 ‘실물’의 연구방식,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 비교분석과 비판적 자세, 체계적인 개별문화사 정리 등의 연구 활동을 펼치면서 경학의 와해와 학술평등, 학술분류 관념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국학연구와 학술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는 국학문이 새로운 학문적 변화로서의 국학체계-‘신국학’을 세우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학문은 어떤 학술적 변화를 가져왔는가? 첫째, 경학이 주도하던 전통학술 구조가 와해되면서 각 학문은 서학의 분류에 따라 새로운 학술분류체계를 형성하였고 학문의 평등성도 인정되었다. 둘째, 유럽, 일본 등의 한학연구의 성과로 인해 국학연구는 학술방법과 태도 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즉 자료정리와 발견을 오직 문헌에서만 찾던 것을 실물과 발굴조사 방식으로 전환해나갔다. 셋째, 연구영역을 확대하여 기존에 간과했던 개요, 민속, 방언, 소설 등의 속문학 관련 연구들이 활성화되었다. 넷째, 학술문화와 출판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20년대 이후 국고정리가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학술기구와 출판기구의 협력 아래 신문, 잡지 등 학술기간물이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국학문은 《國學季刊》, 《國學門週刊》, 《國學門月刊》, 《歌謠》 등의 학술정기간행물을 발간하였고, 학술 총서 《가요총서》 및 고힐강의 《古史辨》, 호적의 《中國哲學史大綱》 등은 당시 상당한 독자층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적 발전을 꾀하였다. 국학문은 북경에 거주하지 않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학자들로서 국학문의 발전에 조언을 해주는 고문 역할자로서의 ‘통신원’ 제도를 두었다. 당시 나진옥(羅振玉)을 제외하고, 伯希和(Paul Pelliot 프랑스), 今西龍(일본), 澤村專太郎(일본), 吳克德(Dr. K. Wulff 스웨덴), 阿腦爾特(Therese P. Arnould 프랑스), 衛禮賢(Dr. R. Wilhelm 독일), 田邊尙雄(일본)은 모두 외국 학자들이었다.

이상 20년대 북경대학연구소 국학문을 통해 당시 국학연구의 방향과 학술관념의 변화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국학문 동인들은 한 국가의 학문적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식인으로서 당시 서학의 대 물결 앞에서 국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실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국고정리의 출발점이 대응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든 자각적 발로에서 비롯되었든 전통학술문화에 대한 반성과 재조명을 통해 새로운 현대적 학문으로 거듭나려한 점은 그들의 공동인식이었을 것이다. 비록 덜 성숙한 상태일지라도 한걸음의 진척을 이끌어내려 한 그들의 실천적 노력은 소중한 결실로도 이어졌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전통학문 ‘국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학문연구방법 및 학문분과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실천이었다. 이는 국학의 학문영역이 점차 현대 학문분류체계에 의해 와해되면서 西學의 대응력을 잃어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중국의 학술체계의 과도기적 변화의 일면으로도 기능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陳平原 《老北大的故事》，北京大學出版社，2009년
 董寶良 《中國近現代高等教育史》，華中科技大學出版社，2007년
 徐雁平 《胡適與整理國故考論-以中國文學史研究爲中心》，安徽教育出版社，2003년
 羅志田 《國家與學術：清季民初關於“國學”的思想論爭》，三聯書店，2003년
 陳以愛 《中國現代學術研究機構的興起-以北大研究所國學門爲中心》，江西教育出版社，2002년
 羅志田 《20世紀的中國：學術與社會》，山東人民出版社，2001년
 桑 兵 《晚清民國的國學研究》，上海古籍出版社，2001년
 金以林 《近代中國大學研究(1895-1949)》，中央文獻出版社，2000년
 桑 兵 《國學與漢學-近代中外學界交往錄》，浙江人民出版社，1999년
 陳平原 《中國現代學術之建立-以章太炎，胡適之爲中心》，北京大學出版社，1998년
 鄭師渠 《晚清國粹派-文化思想研究》，北京師範大學出版社，1997년

논문류

- 肖 朗 <明清之際西方大學學科體系的傳入及其影響>，《浙江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09년 1期
 歐陽小紅 《國學院的發展及辦學特色探析》，《廈門大學》(碩)，2008년

- 박영미 <胡適의 청대사상 연구에 대한 小考: ‘治學方法’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2008년 제 24집
- 吳滌南 《無錫國專與現代國學教育》, 《華東師範大學》(博), 2006년
- 김원중 <5·4 新文化運動期에 있어서 ‘國故整理’의 문제에 관한 검토: 胡適을 中心으로>, 《중국학논총》 2006년 제22집
- 關光才 <清華國學院의 浮沉及其在當代學術界的價值>, 《學術界》, 2005년 총111기
- 張亞群 <廢科舉與學術轉型-論清末科學教育的發展>, 《東南學術》, 2005년 4기
- 盧毅 <“國學”, “國故”, “國故學”-試析三詞在清末明初的語言變遷和相互關聯>, 《教育學研究》, 2005년 2기
- 盧毅 <整理國故運動研究述評>, 《貴州社會科學》, 2005년 1기
- 盧毅 <整理國故運動與國學研究的學科重建>, 《福建論壇》, 2004년 6기
- 左玉河 <從“孔門四科”到“儒學四門”-對中國傳統學術分類的一種簡略考察>, 《中州學刊》, 2004년 5기
- 천성림 <20세기 중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문화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2004년 제 15권 1호
- 羅志田 <西學沖擊下近代中國學術分科的演變>, 《社會科學研究》, 2003년 1기
- 程嘯, 談火生 <分科設學和清末明初中國的學術轉型>, 《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년 2기
- 葉瑞昕 <國學在新文化運動前的一場自救運動-論20世紀初的保存國粹思潮在中國文化發展史上的價值>, 《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년 1기
- 肖朗 <中國近代大學學科體系的形成-從“四部之學”到“七科之學”的轉型>, 《高等教育研究》, 2001년 22卷 6기
- 左玉河 <西學移植與中國現代學術門類的初建>, 《史學月刊》, 2001년 4기
- 羅志田 <古今與中外的時空互動: 新文化運動時期關於整理國故的思想論爭>, 《近代史研究》, 2000년 6기
- 章清 <傳統: 由“知識資源”到“學術資源”>, 《中國社會科學》, 2000년 4기
- 羅志田 <走向國學與史學的“賽先生”-五四前後中國人心目中的“科學”一例>, 《近代史研究》, 2000년 3기
- 黃晏好 <四部分類是圖書分類而非學術分類>,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0년 2기
- 陳平原 <大學之道-傳統書院與二十世紀中國高等教育>, 《嶺南學報》, 1999년 1기
- 羅志田 <從科學與人生觀之爭看後五四時期對五四基本理念的反思>, 《歷史研究》, 1999년 3기
- 桑兵 <晚清民國時期的國學研究與西學>, 《歷史研究》, 1996년 5기

